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와 키르기스스탄의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 이주민설화의 ‘잡아먹는 모성상(母性象)’ 화소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김정은\*\*

## 〈차례〉

1. 서론
2. 설화의 공통된 화소와 이질성을 매개로 한 상호문화교육의 설계
3. ‘잡아먹는 모성상(母性象)’ 화소의 비교를 통한 의미 생성
  - 1)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의 서사 양상
  - 2) ‘잡아먹는 모성상’을 통한 성장의 상징적 도약
4. 차이를 활용한 ‘희생하는 모성’에서 ‘사회적 모성’으로의 의미 확장
5. 결론

## 〈국문초록〉

본 논의는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의 고통과 불안을 줄이고 지문화와 타문화를 모두 긍정하며 서로의 차이를 소통해가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각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구비설화 속 화소의 유사한 의미를 활용하여 친밀함을 형성하고, 이후에 이질적 화소의 차이를 매개로 이주민들이 정체성으로 겪는 불안과 혼란을 넘어설 수 있는 준거를 확장해가는, 5단계의 상호문화교육의 과정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민담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이주민이 구술한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를 비교연구 대상으로 했다. 두 설화의 ‘엄마 웃을 입은 호랑이’와 ‘구리할머니’는 전세계설화에서 나타나는 ‘잡아먹는 모성상(母性象)’의 화소로, 희생하는 엄마를 잡아먹고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고 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6084383)

\*\* 건국대학교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다. 아이들은 이들과 대면하여 공포를 경험하지만, 이를 계기로 공간을 이동하게 되면서 성장의 상징적 도약을 이뤄내게 된다. 이때 두 소녀는 오누이와 다르게 세 번의 모성을 다시 경험하는 차이가 있는데, 이를 희생하는 엄마와 잡아먹는 모성의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관계 확장의 사회적 모성으로 해석하였고, 다문화가정에서 겪는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을 사회적 모성의 준거로 해결해 가야 함을 제시했다.

□ 희생적 모성, 잡아먹는 모성, 사회적 모성, 결혼이주민 설화, 상호문화교육, 자녀양육, 키르기스스탄 민담

## 1. 서론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다문화 아동의 증가 등으로 민족의 인구 구성이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9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혼인 비중은 전체 혼인 중 10.3%로 나타났다.<sup>1)</sup> 현재는 한국계 중국, 일본의 이주여성과의 결혼은 2000년대 초반보다 줄어들고 있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이주여성과의 결혼이 늘어나고 있으며, 점점 결혼이주의 국적도 다양해지는 추세로, 2016년에 비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아시아 이주민들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sup>2)</sup>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의 문화도 한국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본 연구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통해 한국학의 저변을 확장해 가고자 했던 『다문화 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설화 구술자료 DB 구축』 프로젝트(2016년 9월-2019년 8월)에 참여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며,

1) 통계청,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20.11.05.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50쪽, 2021. 6. 30.

그들 모국의 설화와 이주생애담을 조사한 바 있다.<sup>3)</sup> 그 결과 27개국 136명의 제보자가 구술한 1493편의 설화, 속담, 수수께끼, 생애담 등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DB로 구축할 수 있었으며, 현재 누구나 접근하기 쉽도록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이트를 통해 접할 수 있다. DB로 구축된 이와 같은 자료들은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풀어낼 기초자료로 많은 가치가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을 만나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만이 아니라 번역 등이 되지 않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중앙아시아의 구비문학의 자료도 축적되어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현재 결혼이주민의 국적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설화로 비교 연구가 집중되었던 논의 대상을 확장하여, 이질적 문화와 접촉해 보기 위해 결혼이주민이 구연한 키르기스스탄의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를 텍스트로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자료가 정리되고 공개된 이주민 구술설화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주민설화를 통해 이주민들이 문화정체성을 높이고 구성원 간의 상호문화 이해와 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논의<sup>4)</sup>, 표층의 지식정보 수준을 넘어서 보았을 때, 설화의 미적 깊이와 감응력으로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심층적인 차원의 교감과 공유가 실현되며 다문화 문식성이 구현될 수 있다는 논의<sup>5)</sup>, 이주민설화를 통해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에 어떻게 문화적으로 감응하며 상호문화능력을 신장할 교육 내용으

---

3) 조사한 자료 중 DB로 선정된 1493편의 자료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다. 『다문화 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설화 구술자료 DB』에서 볼 수 있다. 각 나라의 설화별로 전사한 한글파일, 음성파일의 무료로 공개되고 있으며, 나라, 제보자, 제목, 주제어로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자료 링크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6-KFR-1230004>

4) 박현숙, 「이주민 구술설화의 문화적 가치와 활용 방안」, 『구비문학연구』 49,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179~229쪽.

5) 신동훈,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 『국어국문학』 180, 국어국문학회, 2017, 281~323쪽.

로 생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sup>6)</sup>, 아시아 트릭스터담을 통한 공감 교육<sup>7)</sup>, 아시아 나라의 이주민이 구술한 열두 띠 설화를 활용하여 문화 인식의 맥락과 통합적 가치를 생성하는 상호문화감수성 신장의 문화교육<sup>8)</sup> 등의 대표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sup>9)</sup>

127명의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모국의 이야기를 구술할 수 있었던 것은 이야기와 문화적 구술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풍토에 대해 직접, 간접적으로 표현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자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에 살면서 어려웠거나 힘든 점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대표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산후조리 때 미역국을 계속 먹기 힘들었다는 경험담이었다.<sup>10)</sup> 한국인의 출산문화와 음식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했을 때

6) 김정은, 「이주민 구술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의 교육 방안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3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201~238쪽.

7) 오정미, 「아시아 트릭스터담을 활용한 상호문화교육에서의 공감교육 - '다름'이 아닌 '같음'을 바탕으로 -」, 『우리문학연구』 69, 우리문학회, 2021, 133~162쪽.

8) 김정은, 「아시아 열두 띠 설화의 동물 표상을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신장의 문화교육 : 이주민 구술설화 자료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60, 한국구비문학학회, 2021, 119~159쪽.

9) 이 외에 이주민 설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오정미, 「이주민 설화 조사를 통해 본 새로운 다문화교육 방안」, 『구비문학연구』 47, 한국구비문학학회, 2017, 187~211쪽 ; 김민수, 「다문화 설화작품과 현장적 소통방식의 문학치료학적 활용가능성」, 『문학치료연구』 4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165~195쪽 ; 김영순·오영섭, 「전환학습 관점에서 본 이주민설화조사 연구자의 다문화감수성 발달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8-3, 한국국제교류문학학회, 2019, 47~74쪽 ; 황혜진, 「베트남 이주민 구술설화 자료의 현황과 성격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4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9, 155~197쪽 ; 오정미,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 :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 인하대학교교육연구소, 2020, 1281~1298쪽 ; 김정은 「자연물이 된 아이」 화소에 표상된 돌봄의 문제적 양상을 활용한 다문화이동의 상호문화 주체성 모색—결혼이주민 구술설화 자료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3, 한국여성문학회, 2021, 42~63쪽.

10) 그때 미역국이 나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음식 하나도 없는데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불안, 모든 것을 뒷받침해주는 한국 엄마들과 다르게 자란 본인들이 자식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남편의 권위적인 양육 태도로 인한 마음의 갈등 등을 표현하기도 했다. 다문화가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남편, 시댁 구성원들과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보다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강요받을 때가 많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에 대한 폄하하는 태도가 다문화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까 봐 불안한 것이다.

그동안의 다문화 교육 역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잘 동화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방향과 교육정책이 많았다.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고 동화하는 방향의 다문화교육도 필요했지만, 순기능만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한국 전체 이혼에서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달하는데, 이주여성의 혼인 중단 사유의 49.7%가 ‘소통의 어려움’<sup>11)</sup>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는 입국 초기의 언어적인 문제도 있지만, 상호문화의 차이가 서로 이해되고 소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해 준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것에는 다양한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한다는 어려움도 있지만, 타문화의 낯선 가치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문화중심의 사유로 인해 보지

---

없는데, 미역국 냄새 확 나서. 우리 남편은 저한테 물어보잖아.

“미역국 못 먹으면 오빠가 쌀국수 사주라고 해.”

그래서 쌀국수 사주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시어머니 말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애기 태어날 때, 출산할 때는 미역국 많이 먹어야 한다고 그래서 젓이 많이 생기고, 그런 소리 들었으니까 싫어해도 아주 싫어해도 열심히 먹어요. [조사자1: 억지로 먹었어요?] 네.

(자료명 : 베트남과 한국 문화의 차이, 쩌티\*\*\*언 [베트남, 여, 1988년생, 결혼이주 7년차], 조사일시 : 2017. 08.11(금) 오후, 조사장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11) 여성가족부,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2021.5.

못했던 새로운 삶의 자질을 발견해 갈 수 있다는 큰 이점도 있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를 매개로 하여 다문화교육에서 한국문화에 동화되는 방향의 교육을 지양하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긍정하고 이해해가는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각 나라의 문화적 가치가 담긴 이주민 구술설화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삶의 태도를 각인하게 하는 설화의 기본 단위인 화소가 있는데, 이 화소들은 한국설화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삶의 문제를 반영하고 상징하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각 나라의 문화가 반영되어 차이점을 형성하며 새로운 삶의 자질을 생각해 보게 하는 특징이 있다. 화소가 가진 상징성을 상호문화교육의 매개로 활용하여 서로 다른 나라의 설화가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자문화중심의 사유로 보지 못했던 삶의 긍정적 의미자질들을 생성해 보고자 한다. 이주민을 만나며 DB로 집대성한 1,493편의 설화 구술자료 중, 키르기스스탄의 결혼이주민이 들려준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에 나오는 '구리할머니'는 어머니를 잡아먹고 두 소녀까지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서사요소가 있는 한국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와 비교하며, 전세계 설화에서 보호하고 희생하는 어머니가 잡아먹히는 것의 상징적 맥락을 소통해가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한국문화의 교육관에 대한 의구심과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불안감을 넘어서며, 자녀가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한 모성의 역할을 함께 모색해 보는 상호문화 소통의 내용을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

## 2. 설화의 공통된 화소와 이질성을 매개로 한 상호문화교육의 설계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름에 대한 교류와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작용을 추구<sup>12)</sup>해야 하는데, 이때 이주민이 문화전달의 주체가 되어 한국인에게 구술한 설화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각 나라에서 구비전승된 설화에는 문화가 상징적으로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화의 기본 단위로, 각 나라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각인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문제적인 삶을 상징하며 사건을 형성하는 ‘화소’에 주목해 볼 수 있다. 화소는 각 나라마다 형상은 다르지만 비슷한 플랫폼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모티프에 대해서는 비교문학을 통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논의에서는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며,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게 되는 과정에서 상호문화능력<sup>13)</sup>과 상호문화감수성<sup>14)</sup>을 신장하는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을 구성해 보

12) 임선일·이정연, 「다문화교육의 한계와 상호문화교육으로의 전향 가능성에 관한 연구」, 『시민인문학』 32,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40~71쪽.

13) 장한업은 상호문화능력이란 “상호문화적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관계를 형성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장한업,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교육과학사, 2017, 157쪽.) 상호문화능력이란 “문화간 접촉 상황에서 개인이 문화간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상호 문화적 맥락에서 적절하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신승혜, 「신화를 활용한 결혼이민여성의 상호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3~4쪽.) 김정은은 “상호문화에서 동질적 결합에 대한 욕망의 한 계를 인지하고, 이질성으로 인한 소통의 장벽을 허무는 것과 표면과 이면의 사유를 통해 이질적인 것과 어떻게 관계를 생성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으로 상호문화능력을 정의한 바 있다. (김정은(2018), 앞의 논문, 209쪽.)

14) 베넷은 상호문화 감수성을 복수의 집단에서 문화적 차이에 반응하면서 형성되는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나 행동 경향성으로 정의한다. 문화정체성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규정된 것이 아니라 자아와 타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의 상호적 영향관계에 따라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는 역동성에 초점을 둔다. 결국 자문화중심에서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으로의 이행을 목표로 한다. (한용택, 「Bennett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발달 모델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시안」, 『시민인문학』 32,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114쪽 ; 김정은(2021), 앞

고자 한다.

이때 화소가 가지는 두 가지 특징에 주목해 볼 수 있다. 화소는 그 나라 기후, 환경, 종교 등의 문화가 반영된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한국설화에서 볼 수 없었던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화소가 가진 상징은 의미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서로 부딪치며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기능이 있어서, 의미 맥락이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설화로 전세계에 존재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주민과 만나 설화를 조사해 가는 과정에서 27개국의 이주민이 설화를 선택하고 구술할 때 주목할 수 있었던 태도 중의 하나는 신데렐라로 대변되는 의붓자매 화소가 있는 이야기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화와 비슷해서 한국사람들도 많이 알 것 같은 이야기, 열두 띠처럼 아시아 광포설화들, 한국에서 유명한 설화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 설화들을 제보자가 미리 준비하거나, 조사자들의 요청에 의해 즉각적으로 기억에 의존해 이야기하면서도 적극적으로었다는 점이다. 제보자가 한국의 설화를 미처 알지 못했어도, 조사자가 구연한 설화와 비슷한 한국의 설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 무척 반가워하며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이주민이 모국의 설화를 한국에 구술하는 과정이 상호문화를 소통하는 과정이 된 것이고,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들에게도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들로 결혼이주민이 자신의 문화를 소통할 기회가 점점 생기겠지만, 아직은 이주민이 모국의 설화를 자연스럽게 구술하며 한국의 설화와 소통하는 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지는 않고 있다. 조사자들을 통해 구축된 1493편의 DB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라에 따라 명칭은 달라도 사건을 형성하고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생성하는 유사한 화소에 기대어 친밀한 감성을 바탕으로 상호문화의 교감을 형성하고, 타문화가 가지는 이질성을 통해 복수의 준거를 공존해 갈 수 있는 삶의 자질을

확장해 보는 상호문화소통의 교육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교육에서 상호문화교육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던 장한업은 양문화를 비교할 때 두 문화의 차이점에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차이의 확인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지만 유사성은 확인은 연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논한바 있고,<sup>15)</sup> 최원오는 아시아의 쌀과 관련된 설화나 민요 등의 자료를 모아 다문화적 소통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sup>16)</sup> 이주민 설화 연구에서는 오정미가 아시아 트릭스터담을 통해 다름보다 같음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 바 있고,<sup>17)</sup> 김정은은 아시아 열두 띠 설화를 통해 유사한 열두 띠의 동물의 순서 등이 정해진 내력을 전승하면서도 각 문화를 대변하는 친숙한 동물의 문화적 표상으로 차이를 형성한 지점에 주목하기도 했다.<sup>18)</sup>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공통되거나 유사한 지점에서 상호문화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친밀한 감정을 형성한다는 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호문화를 잘 소통하고 교감한다는 것은 보편성과 유사성에만 기댈 수 없다. 친밀한 감정을 형성하면서도, 결국에는 서로 다른 문화를 교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이질성에 대해 문화적 매개나 중재적 역할을 해나갈 능력과 감수성을 신장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원오는 레비스트로스의 문화적 특수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론에 힘입어, 공통점과 보편성으로 특별한 문화적 차이를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각 문화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교육할 시점이 필요함을 논했다.<sup>19)</sup> 낯설, 다름, 이질성을

15) 장한업(2014), 앞의 책, 155~156쪽.

16) 최원오, 「구비문학을 통한 다문화적 소통 방향에 대한 제언」, 『구비문학연구』 49, 한국구비문학회, 2018, 72쪽.

17) 오정미(2021), 앞의 논문, 133~162쪽.

18) 김정은(2021), 앞의 논문, 119~159쪽.

19) 최원오, 「다문화사회와 구비문학 교육-구전신화에 내재된 초국가적 원리를 중심으로-」,

통해 기존의 사유로 보지 못했던 다양한 준거를 생성하며 삶의 가치를 확장하고,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의 고통과 불안을 줄이고 자문화와 타문화를 모두 긍정하여<sup>20)</sup> 서로의 차이를 즐길 수 있는 과정에서 바로 상호문화능력과 상호문화감수성이 신장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각 나라의 구비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정체성 혼란에 대해 복수적 준거를 마련하도록 돕고, 정주민인 한국인들에게는 그동안 사유하지 못했던 문화 방식에 감응하며 사유를 넓혀 갈 수 있는 서사적 길을 안내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호문화교육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단계화해볼 수 있다.

1단계 : 이주민설화 접하기

2단계 : 이주민설화와 한국설화의 공통 화소로 친밀한 정서 형성하기

3단계 : 공통 화소 속 상징된 보편적 삶의 의미자질 파악하기

4단계 : 문화적 차이를 매개로 한 확장된 삶의 가치 생성하기

5단계 : 다양한 준거로 하나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서사적 길내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본 논의에서는 한국의 유명한 민담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비슷한 화소가 있으면서도, 한국문화에서 낯선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설화인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를 비교 설화로 택했다. 이 설화를 접하는 1단계를 거쳐, 두 설화에서는 무서운 존재가 어머니를 잡아

『어문학』 60, 한국어문학회, 2009, 137~138쪽.

20) 베넷은 상호문화 감수성 발달 모델은 ‘자민족 중심주의 단계’에서 ‘민족 상대주의 단계’로 발전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체계화하였다. (한용택(2017), 앞의 논문, 107~136쪽.)

먹고 오누이와 자매까지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2단계를 거쳐서 문화적 거리를 좁히는 친밀한 감정을 형성하고, 전세계에 어머니를 잡아먹는 화소로 사건이 발생하고 넘어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3단계를 거쳐서, 호랑이라는 동물적 존재로 표현한 것과 구리할머니라는 무시무시한 할머니로 화소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은 어떤 문화적 차이로 다른 시야를 확장하게 하는지 생각해 보는 4단계 이후에, 설화의 비교를 통해 생애담에서 결혼이주민들이 적응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물었을 때 답한 내용을 함께 5단계에서 연결해서 풀어내 보고자 한다. 한국의 희생적 모성 풍토와 헬리콥터 맘처럼 많은 것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교육문화로 인해 혼란을 겪으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하는 이주여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낼 수 있도록 다른 관점의 준거를 확장해 보는 5단계 과정의 수업을 3장과 4장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하겠다.

### 3. ‘잡아먹는 모성상(母性象)’ 화소의 비교를 통한 의미 생성

#### 1)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의 서사 양상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는 전국에 분포한 한국의 대표 민담이다. 그 중 화소가 풍성하게 담겨 있는 『한국구전설화』 4권의 강원도 평창의 설화를 대상으로 자세하게 서사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산골에 사는 엄마가 찢먹이 어린애와 오누이를 데리고 살았다.
- ② 하루는 남의 집 품팔이를 하고 개떡을 얻어서 고개 하나를 넘으니까,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을 달라고 하였다.
- ③ 고개를 넘을 때마다 떡을 주고 떡이 없다 하니, 저고리, 치마를 달라고

하고, 다음 고개를 넘을 때마다 팔, 다리를 달라고 하고 또 넘어가니까 엄  
마를 잡아 먹었다.

- ④ 호랑이는 여자의 옷을 입고 오누이에게 가서 엄마가 왔다고 했지만, 오누  
이가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자, 호랑이는 목이 쉬어서 그런다고 했다.
- ⑤ 아이들이 문구멍으로 손을 넣어보라고 해서 넣었더니 털이 있고 꺼끌꺼  
끌해서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호랑이가 발을 매추느라 풀을 만져서 그렇  
다고 하자, 오누이는 문을 열어주었다.
- ⑥ 호랑이는 애기 젖을 먹인다면서 애기를 오독오독 잡아먹자, 오누이가 뿔  
먹나며 자신들도 달라고 하자, 콩 볶은 것을 먹는다고 하면서 애기 손가락  
을 던져 주었다.
- ⑦ 오누이가 애기 손가락을 보고, 엄마가 아니고 호랑이라고 알고는 똥이  
마렵다고 하자, 호랑이는 방에다 누라고 했지만, 오누이는 냄새가 나서 안  
된다고 했다.
- ⑧ 호랑이가 토방에다 누라고 하자, 오누이는 나가다 밝게 되어 안된다고  
하자, 호랑이가 뒷간으로 가라고 하자, 오누이는 나와서 우물 옆 노송나무  
에 올라가 있었다.
- ⑨ 호랑이가 아이들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사방을 돌아다니며 찾다가 우물  
안을 보니 아이들이 있어서 나오라고 손짓했다.
- ⑩ 오누이가 옷자, 호랑이가 위를 보니 아이들이 나무에 있어서 어떻게 올라  
갔냐고 물어봤다.
- ⑪ 큰 사내아이가 앞집에서 기름을 바르고 올라왔다고 하자, 호랑이도 기름  
을 바르고 올라가려고 하자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다.
- ⑫ 호랑이가 다시 물으니 어린 누이가 도끼를 찍으면서 올라왔다고 해서,  
호랑이가 도끼를 찍으며 아이들 있는 곳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 ⑬ 오누이가 우리를 살리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하고 죽이려면 현 동아  
줄을 달라고 하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것을 타고 올라갔다.
- ⑭ 호랑이 역시 똑같이 빌자, 줄이 내려와 호랑이는 줄을 타고 갔는데, 현  
동아줄이 올라가다 끊어져 호랑이가 수수대에 떨어져 빨갱게 되었다.
- ⑮ 오누이는 하늘에 올라가서 누이는 해가 되고 오라비는 달이 되었다.<sup>21)</sup>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의 서사적 요점은 “아이들이 엄마를 잡아먹은 공포의 대상을 대면하여 자신들까지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길을 찾는다.”이다. 위기의 대면과 극복의 순차구조로 자립과 성장의 자질을 생성하는 서사원리임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자신들의 빛을 내는 과정에는 왜 엄마를 잡아먹는 공포의 대상을 대면해야 하는 것일까?”하는 서사적 질문이 생성될 수 있다. 엄마를 잡아먹는 공포대상을 경험하게 하는 이야기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설화에서 〈콩지 닷 밭 주둥이 닷 밭〉로 표현된 커다란 새 역시 엄마를 잡아먹으며 공포를 주는 화소이다. 본 논의에서는 이주민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sup>22)</sup>를 대상으로 했다.

이주민 설화에서 이와 비슷하게 무서운 존재가 엄마를 잡아먹는 화소가 있는 이야기를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결혼이주민에게 들을 수 있었다.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는 키르기스스탄의 결혼이주민에게 들을 수 있었다. 조사를 하면서 영덕에서 만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이주민은 토\*\*바 이\*\*다(이후 토\*\*바) 제보자였다. 토\*\*바 제보자는 조사 당시 한국에 결혼으로

21)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4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편), 평민사, 1993, 166~168쪽. 〈해와 달이 된 남매〉 (평창군 대화공립보통학교, 황인섭, 1927)

다음의 자료들도 비슷한 내용으로 전승된다.

『한국구비문학대계』 1-7,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김순이, 경기도 강화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72~275쪽.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2권(평안북도 편), 평민사, 2011, 139~142쪽 ; 〈해와 달이 된 남매〉 (평안북도 선천군, 류준룡 외 구연, 1934)

22)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는 최근 텍스트로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익숙한 동화로 한국의 언어문화, 정신문화, 생활문화가 잘 내재한 이야기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존재하여 다방면의 비교가 가능하기에 텍스트로서 유용하다는 판단으로 한국어 교육에 적합하다는 논의가 이미 진행된 바 있고(김현숙,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 18쪽), 한국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중국의 〈늑대와 낭자〉를 비교한 한국 문화교육을 시행한 논의가 있다. (박해윤, 「한·중 전래동화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충주: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1~69쪽.)

이주한 지 16년 차였다.<sup>23)</sup> 토\*\*바 제보자는 책을 보고 미리 준비해온 이야기 외에 기억 속의 이야기를 되살리기도 하면서 차분한 태도로 이야기를 구연하며, 생애담과 전설, 민담 등 총 14편의 자료를 구술했다. 그중 〈구리 할머니와 두 소녀〉는 토\*\*바 제보자가 준비해온 이야기를 다 했다고 했을 때, 조사자가 러시아의 바바야가 같은 할머니 이야기가 키르기스스탄에 있냐고 하자, 구리할머니가 있다며 시작된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끝나고 한국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가까운 이야기라고 조사자와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다. 구리 할머니는 구리 같은 손톱이 길다고 했다. 자료 서지사항과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의 서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자료 번호	제보자 이름	국적	이주 상황	설화 제목	조사지역	조사일시
1	토**바 이**다	키르기스스탄	결혼 16년차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	경상북도 영덕군 병덕면	2018.01.28

- ① 옛날에 어린 딸 두 명을 가진 가난한 과부가 생활이 힘들어 딸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 ② 그들은 어떤 집을 발견해 들어가서, 그 집의 할머니와 같이 지내게 되었다.
- ③ 주인 할머니는 온종일 동물 가죽을 대고 잠만 잤고, 엄마가 일을 다 했다.
- ④ 하루는 할머니가 엄마에게 부츠 밑에 까는 풀을 뽑으러 가자고 한 뒤, 숲속에서 엄마를 칼로 죽이고, 불을 피워 잡아먹어 버렸다.
- ⑤ 그 할머니는 사람을 잡아먹는 구리할머니였는데, 할머니는 혼자 돌아와서 두 소녀에게 엄마는 곧 올 거라고 하고 잠이 들었다.

23) 조사자가 토\*\*바제보자에게 영덕에서 살게 된 내력을 묻자, 키르기스스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서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영덕과 대구에 많이 살게 되었다고 했다. 조사 당일에도 제보자와 함께 이주해서 옆집에 사는 친구인 마두\*\*\*씨가 와서 함께 이야기를 들었다.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는 조사자에 요청에 의해서 조사 당시에 바로 기억을 해서 한 이야기지만, 전반적으로 완결성이 있었고, 중간에 함께 온 친구에게 맞게 얘기하고 있는지 눈짓이나 러시아어 등으로 확인하며 구연했다.

- ⑥ 큰딸이 엄마를 찾으러 숲에 가보니 불을 피운 흔적에는 뼈가 있었고, 옆에 부츠, 빗, 끈, (거울) 등만 있었다.
- ⑦ 큰딸은 엄마의 짐을 다 챙겨서, 집의 이불 속에 잡아 온 새 두 마리를 넣고 동생과 도망을 쳤다.
- ⑧ 구리할머니는 자다가 중간중간 깨서 아이들이 잘 자고 있나 이불을 만져 보면, 심장 두 개가 파닥이는 소리가 들려 안심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 ⑨ 할머니는 일주일 후에야 눈을 뜨고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떠났음을 알아챘고, 아이들을 쫓아갔다.
- ⑩ 아이들은 할머니가 금세 쫓아오자, 돌아가신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하며 거울을 던지자 호수가 생겨 길을 막았다.
- ⑪ 일주일만 지나자 호수가 없어져 구리할머니가 무섭게 쫓아왔다.
- ⑫ 아이들이 엄마의 부츠를 던지자 바위산이 생겼다.
- ⑬ 이후 두 소녀는 어떤 섬까지 가게 되었는데, 섬에 사는 시커먼 할머니가 자신이 예쁘게 생겼냐고 물어봤다.
- ⑭ 소녀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을 너무 오랫동안 못 본지가 오래되어 그런지 할머니가 제일 예쁘다고 했다.
- ⑮ 시커먼 할머니는 두 소녀에게 가족 조각들을 주면서, 사랑하러 떠나서 몇 년째 돌아오지 않는 두 아들을 찾아달라고 했다.
- ⑯ 두 소녀는 시커먼 할머니의 아들들을 찾으러 길을 떠나 숲으로 다시 갔다.
- ⑰ 숲에서 두 아들을 만나, 할머니가 주었던 가족을 보여주자 두 아들은 함께 할머니의 집에 돌아왔다.
- ⑱ 할머니의 큰아들은 큰딸하고, 작은아들은 작은딸과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키르기스스탄 민담에서는 구리할머니는 구리 같은 긴 손톱이 있고, 짐승 가족을 덮어쓰고 일주일씩 잠을 자는데, 엄마와 아이를 잡아먹는 무서운 할머니 형상이다. 두 소녀와 엄마처럼 집을 떠나 어려움을 겪는 존재들이 안락한 곳인 줄 알고 기대고 머물게 되는 공간을 가진 특징도 있다. 세계설

화에 이와 같은 화소가 나타나는데, 일본민담에서는 야만바(산마귀할멈), 러시아민담에서는 바바야가, 독일민담의 〈헨젤과 그레텔〉의 할머니, 중국의 늑대할머니도 자신들의 공간에 들어온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얼핏 보면 한국설화의 동물인 ‘호랑이’와 사람인 ‘구리 할머니’가 동일한 화소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이주민설화가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목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전승되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대해서는 결혼이주민들 역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대만, 몽골의 이주민들이 한국과 조금 다르게 전승되는 이야기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구연하여, 8편이 조사되었다. 이중 중국 한족 제보자가 전승한 이야기는<sup>24)</sup> ‘할머니로 변장한 호랑이’가 엄마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오누이를 잡아먹기 위해 왔는데, 막내를 잡아먹는 것을 보고, 나무에 올라간 아이들이 바구니를 타고 올라오라고 하고 놓친 척 하면서 땅에 떨어뜨려 죽이고 어머니는 돌아와서 막내가 죽은 것을 슬퍼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출신의 결혼이주민이 구술한 내용에서는 엄마를 잡아먹는 화소는 없이, 아이들을 잡아먹는 모성상으로 할머니로 변장한 호랑이가 등장한다.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결말이 행복한 결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마를 잡아먹히지 않았을 때는 아이들은 다시 오두막에서 엄마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 독립의 과정이 미완의 상태

24) 〈변신 호랑이를 물리친 오누이〉, 심\*령 [중국, 여, 1988년생, 결혼이주 4년차], 조사일시(2019. 03. 08(금) 오전), 조사장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옛날에 홀어머니와 세남매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엄마가 외할머니 생신이라 일을 하러 가야한다며 아이들을 남겨두고 길을 떠났다. 가다가 한 할머니를 만난 엄마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집에 아이들만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로 변장한 호랑이는 아이들을 찾아가 엄마가 보내서 왔다고 했다. 첫째와 둘째는 의심했지만, 막내는 할머니와 잘 놀았고 결국 밤에 잡아먹혔다. 첫째와 둘째는 이를 눈치채고 핑계를 대고 집 밖 나무로 올라갔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발에 돼지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라고 했다. 할머니가 힘들어 하자 아이들은 바구니를 내려주어 타게 하고는, 중간쯤 올라왔을 때 놓친 척하여 할머니를 계속 땅에 떨어뜨려 죽게 했다. 이후 집에 돌아온 엄마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막내가 죽어 슬퍼했다.

로 남아 있는 상황임을 비교해 보게도 한다. 호랑이지만 할머니의 형상으로 변신하여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처럼,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는 호랑이가 어머니의 옷을 입고 엄마처럼 보이고자 하는 형상으로 오두막에 들어오는 것이다.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에서는 할머니가 엄마를 잡아먹고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보면 ‘잡아먹는 모성상’을 가진 호랑이와 구리할머니는 공통적으로 수성(獸性)과 인성(人性)을 가진 존재이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서사단락 ③, ④에서 보면 호랑이가 한 고개를 넘을 때마다 떡이 없다는 엄마의 옷을 하나씩 빼앗아 입고 엄마인척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 이 역시 동물에서 어머니로 변환하고 있는 모습으로 수성과 인성의 속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의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모두 어머니를 잡아먹고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모성상을 대면하는 것에 친밀함을 느끼면서도, 이 공통화소가 자녀들의 성장과정에 어떤 정신 과정의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인가 하는 상징성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 2) 잡아먹는 모성상을 통한 성장의 상징적 도약

그렇다면 엄마의 보살핌을 받던 오누이와 두 소녀가 무서운 호랑이와 구리할머니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삶의 서사를 생성하게 하는 것일까? 기존의 낡은 가치를 대변하는 부정적 부정상을 넘어서는 영웅의 서사에는 ‘기아(棄兒)’의 화소가 주로 나타난다면<sup>25)</sup>, 부정적 모성상을 넘어서 상징적 독립을 그려내는 서사에는 종종 ‘식인’의 화소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분석심리학에서는 “아동이 부모에게 의존하며 홀로서기를 미룰 때

25) 〈바리테기〉, 〈주몽〉 등의 신화에서 ‘기아’는 기존의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조력자 등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획득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무서운 모성상의 꿈을 꿀 수 있다”<sup>26)</sup>라고 말하며, “모성과의 분리가 유보되었을 경우, 모성상은 자이를 위협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 무서운 파괴적 성향의 동물형상이나 계모의 형태로 나타난다”<sup>27)</sup>라고 논한 바 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이미 많은 연구가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되어<sup>28)</sup> 왔는데,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어머니를 잡아먹는 동물화소인 호랑이에 대해서 부정적 모성상<sup>29)</sup>으로 논의해온 선행연구들에 주목해 볼 수 있다. 논의들을 요약해 보면, 부정적 모성상은 자식을 키우며 희생한 어머니의 그림자이기도 하며, 자녀들이 성장과정에서 독립을 위해 대면해야 할 나쁜 어머니의 형상으로 계모의 역할을 하며 안락한 집에서 세상 밖으로 내쫓는 서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앞의 선행연구인 융심리학과 문학치료학에서 계모가 사실은

26) 지빌레 비르크호이저 왜리 저, 이유경 역, 『민담의 모성상』, 분석심리학연구소, 2012, 57쪽.

27) 지빌레 비르크호이저 왜리 저, 위의 책, 57쪽.

28)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의 선행연구는 동화의 재화 방향과 한국어교육자료로서의 의미, 신화적 관점, 형식 구조, 융심리학적 관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중 신화적 관점에서 입사식담과 천지창조담의 성격이 논의된 바 있는데(한기호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의 신화적 성격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2006, 1~117쪽), 이중 입사식과 관련한 논의가 본 논의의 잡아먹는 모성을 통한 ‘자립’의미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또 〈해와 달이 된 오누이〉설화가 어떻게 변모되어 전승되어왔는가에 주목한 논의에서, ‘어떤 사람이 산속의 호랑이(늑대, 마귀 할멈 등)소굴(집)에 들어갔다가 잡아먹힐 위험에 처한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기본이고, 여기에 일월담이 결합된 형태라고 이해한 논의(이지영,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전승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 1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171~215쪽.)를 보면, 호랑이를 구리할머니처럼 잡아먹는 할머니와 같은 화소군으로 볼 수 있고, 주제를 이들을 만난 위험과 극복으로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9) 이부영 외, 『민담학개론』, 일조각, 1989, 127쪽; 정운채, 「구비옛이야기에 나타난 자녀서사의 어머니」, 『문학치료연구』 제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239~244쪽; 신동훈, 『삶을 일깨우는 옛이야기의 힘』, 우리교육, 2012, 135~149쪽; 김정은, 「〈퐁지땃 밭 주둥이 땃 밭〉설화에 나타난 탐색과 문답의 서사원리 연구」, 『한국고전연구』 38,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132쪽; 김정은, 『옛이야기와 자기발견의 스토리텔링』, 그래비티북스, 2020, 51쪽.

엄마의 두 모습이었다는 논의와 마찬가지로 호랑이 역시 부정적 모성상으로 보는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흐름으로 보았을 때, 구리할머니 역시 따뜻하고 희생적인 어머니를 잡아먹는 ‘부정적 모성상’을 논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의 공간으로 오게 해서 잡아먹는 할머니 서사들에서 보이는 양상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는 다음장인 4단계에서 논하고, 3단계에서는 공통점을 찾는 작업에 더 집중해서 공통된 의미자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부장사회에서 모성이테올로기는 여성에게 모성은 본질적인 것이므로 아이를 돌보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구비설화에서는 따뜻한 모성을 잡아먹고, 자식을 지배하고 집어삼키려는 전능한 초자아의 모성권력<sup>30)</sup>이 동물과 할머니의 화소로 여러 나라의 설화에서 등장하게 함으로써 보호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향된 모성의 기능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잡아먹는 모성상’은 엄마와의 분리를 넘어서는 과정으로 기능하게 하는데, 그런 통제적 특성이 이렇게 잡아먹는 할머니나 동물형상의 화소로 상징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구리 할머니의 모습 역시 따뜻하게 돌봐주는 엄마의 모성과 대립되는 부정적 모성, 무서운 모성의 모습이다. 어린 시절에는 따뜻한 돌봄을 주는 엄마로서 아동과 관계한다면, 사춘기 시절에는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자식을 곁에 두고 자신의 방식으로 통제하기 위해 가혹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라캉은 자식을 분리하지 않고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부모의 욕망을 두고 강력한 턱으로 포식자를 물고 놓지 않는 ‘악어의 이빨’에 비유하며, 부모에게는 사랑으로 포장하여 자식과 분리하지 않고 융합하려는 태도가 있음을 경고했다.<sup>31)</sup> 이렇게 학령기 자녀를

30)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페미니스트 정신분석이론가들』, 여이연, 2016, 127쪽.

31)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위의 책, 118쪽.

통제하려는 모성의 태도가 설화에서는 아동의 인격 성장을 방해하려고 하는 ‘잡아먹는 모성’으로 이미지화되는 것이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엄마는 추운 겨울에 열 고개를 넘어서 일을 하고 오다 호랑이를 만나서 떡을 주고, 옷을 주고, 자신의 팔다리까지 주면서도 오누이가 있는 오두막으로 향하는 희생적인 모성의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잡아먹히면서도 오두막으로 향하는 엄마의 절절한 모성은 오히려 호랑이에게 오두막에 또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된다.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의 엄마 역시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소녀들을 돌보며, 살아가려는 생성의 속성을 가진 존재다. 이와 같은 희생적인 엄마의 모습은 아이들을 낳고 돌보며 성장하게 했다. 그러나 엄마의 보호를 받을 때, 아이들의 서사적 역할은 미비하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움직이는 것도 엄마의 주도이고, 구리할머니와 살면서 해야 하는 집안일 등도 모두 엄마가 해결한다. 이와 대립되게 호랑이는 먹어도 먹어도 끊임없이 먹으려는 욕망이 있고, 구리할머니는 동물 가죽을 덮고 7일씩 잠을 자고 일어나서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로, 본능에 아주 충실한 인물이며 악한 형상이다. 엄마를 잡아먹고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식인성은 살아있는 것의 존재를 없앨 수 있는 파괴의 속성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리할머니의 구리 같은 긴 손톱은 따뜻하고 포근한 모성과 대립되는 자질인 금속성의 날카로운 공격성도 보여준다. ‘희생하고 안전한 엄마 : 잡아먹는 위험한 호랑이’,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 : 차갑고 날카로운 구리할머니’로 대립되는 모성의 양가적인 두 속성의 경험을 통해 오누이와 두 소녀는 보호받던 오두막 혹은 집을 나오고 싶어지게 된다.

이렇게 잡아먹는 존재를 대면하게 될 때 설화에서 아동의 선택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오누이처럼 동이줄을 타고서라도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멀리 도망가거나, 〈꿈지 댕 발 주둥이 댕 발〉의 오누이처럼 정면으로 대항해서 이기는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아동이 융합되어 있던 부모와

분리되고 홀로 된다는 것에서 발생하는 불안은 그동안의 패턴대로 집 안에서 돌봄과 통제를 받는 삶을 선택하게도 한다. 그렇기에 설화에서는 엄마를 죽이거나 잡아먹는 무서운 형상의 화소가 등장하여 오누이로 하여금 다시 안락한 오두막과 집을 의심하게 한다. 오누이는 호랑이라는 것을 안 순간에 그동안 안전하다고 느낀 집안과 오두막을 위협하다고 느끼고 밖으로 나가고자 한다. 이때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와 구리할머니는 오누이와 딸들이 집을 나가지 못하게 감시한다. 그리고 잡아먹음으로써 자신 안에 가두려 한다. 호랑이와 구리할머니는 오누이와 딸들을 나아가지 못하게 사로잡는 힘이 있는 존재지만, 잡아먹는 속성의 공포로 오누이와 두 딸이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한다. 희생하던 엄마가 잡아먹히자 오누이와 딸들은 엄마에게 기대어 문제를 해결해 왔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스스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체가 된다. 자신들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와 구리할머니를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다. 오누이는 똥이 마렵다며 호랑이를 안심하게 하고 도망치고, 두 딸은 엄마의 죽음을 알고 자신들을 대신할 두 마리의 작은 새를 잡아 와서 이불 속에 두고 도망갈 시간을 끈다.

요컨대 이와 같이 공통화소를 바탕으로 탐색해 가는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희생하는 모성’을 잡아먹고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성상과 대면하는 것은 집으로 상징되는 돌봄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성장의 상징적 도약을 이뤄낼 계기를 마련해 주는 서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 이야기는 따뜻하고 모든 것을 다해주는 희생적인 모성만이 아동을 잘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들은 평생 부모의 그늘인 오두막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만이 아니라 멀리 중앙아시아 설화에서도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와 구리할머니와 같은 ‘잡아먹는 모성상’을 대면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면으로 모성에게 기대던 마음을 넘어서는 상징적 도약은 위니콧이 말하는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성숙의 징표이자 모성 돌봄의 궁극적 지향점인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sup>32)</sup>을 키워가는 일일 수 있다. 그렇기에 여러 나라 설화에서는 학령기 아동이 자립할 시기에 희생하는 어머니는 사라지게 하고, 잡아먹는 할머니, 잡아먹는 동물 등으로 모성의 돌봄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상징적 도약을 안내하는 것이다.

#### 4. 차이를 활용한 ‘희생하는 모성’에서 ‘사회적 모성’으로의 의미 확장

아동이 모성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립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서사에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도 ‘잡아먹는 모성’의 화소가 등장하여 주인공을 위협하는데, 이들은 원형적 상징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화소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환기하게 하기도 한다. 두 이야기의 차이는 결말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이 차이로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생성하는 가치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4단계와 5단계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호랑이와 구리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따라온다. 오누이는 공간을 이동하여 우물 위의 나무로 도망가서 따라온 호랑이를 지혜롭게 골탕 먹이기도 한다. 그러나 호랑이는 나무 위까지 따라와서 오누이를 위협한다. 오누이가 간절한 마음으로 새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하늘에 빌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다. 호랑이도 하늘에 빌지만 현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수수밭에 떨어져 죽게 된다. 호랑이를 어머니의 부정적 모습이라고 해석했을 때, 수수밭에 떨어진 호랑이를 통해 자녀들과 분리를 거부하는 모성의

32) 마텔레인 데이비스·데이빗 윌브릿지 저, 이재훈 역, 『울타리와 공간』,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1997, 53쪽.

강한 결합력이 어떻게 파국을 맞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모성의 지배를 벗어나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된 것은 모성의 지배를 벗어나 자신만이 낼 수 있는 빛을 내는 존재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에서 두 소녀는 따라오는 구리할머니를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돌봐주던 엄마의 유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망을 간다. 이는 엄마에게 받았던 긍정적 경험과 정서를 어려운 때에 적극적으로 운용해 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두 소녀가 도망가고 쫓기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민담 〈여우누이〉에서 막내 오라버니가 여우누이로부터 도망갈 때 세 가지 주머니를 던지는 것과 비슷한 화소가 반복된다. 두 소녀들이 활용하는 엄마의 유품은 바로 거울과 부츠이다. 거울은 호수와 비슷한 속성이 있는데, 세상을 왜곡 없이 있는 대로 비춰준다는 점이다. 거울이 호수가 된다는 것은 엄마가 돌봐주었던 힘을 바탕으로 세상에 나아간다는 의미도 있고, 호수처럼 하늘과 날아가는 새도 담을 수는 있을 만큼 너른 세상을 볼 시야를 가질 때, 나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구리할머니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7일 만에 구리할머니가 또 쫓아오자 두 소녀는 엄마의 부츠를 던진다. 부츠는 큰 바위산이 되어 구리할머니를 쫓아오지 못하게 한다. 부츠는 거친 땅을 딛고 서게 하는 힘의 상징으로, 두 소녀들이 그동안 엄마의 돌봄으로 과거와 단절하고, 자신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땅으로 가는 행동력이 생긴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우누이〉에서 막내 오라버니가 주머니를 던지며 삼 세 번을 도망가듯이 이 이야기에서도 삼 세 번의 서사문법이 있었을 텐데, 토\*\*마 제보자가 조사 당시 바로 기억을 떠올려 구술하면서 한 번이 생략된 것으로 짐작된다. 엄마가 죽은 자리에 거울, 부츠만이 아니라 빛과 끈이 있었다는 구술을 보면 이 중에 하나를 더 구리할머니에게 던졌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빛은 〈여우누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시나 뽀뽀하게 자란 수풀과 연관되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화소고, 끈이라면 묶이는 형상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데,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모두 이전의 관계와 단절하게 하는 화소들이다. 전세계 이야기에서 무언가 앞의 상황과 달라져야 할 때, 삼 세 번의 서사문법이 반복되는 것은 그동안 살아온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의 내면의 불안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다스려 가는 과정일 수 있다. 또는 잡아먹음으로 상징되는 또 다른 모성의 힘이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시도가 있어야 비로소 나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오누이는 희생하는 따뜻한 어머니와 잡아먹는 모성을 만나는데, 두 딸은 세 가지의 다른 모성을 만난다. 엄마, 구리할머니, 시커먼 할머니다. 두 소녀는 구리할머니로부터 도망가 새로운 섬에 도착한다. 섬 역시 이전의 육지와 다른 단절된 공간이다. 구리할머니가 더 이상 쫓아올 수도 없고, 이전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패턴이 있는 곳이다. 섬에서 소녀들은 마지막으로 시커먼 할머니를 만난다. 할머니는 자신이 예뻐 보이냐고 물어본다. 소녀들은 예쁘다고 대답한다. 두 소녀가 엄마하고만 살았을 때 만났다면 무서운 겉모습에 집중했겠지만, 이제 구리할머니를 넘어선 소녀들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힘이 생기게 된 것이다. 두 소녀에게 흡족한 대답을 들은 시커먼 할머니는 사냥을 나간 자신의 두 아들을 찾아 달라고 한다. 사냥을 나간 두 아들은 시커먼 할머니인 어머니가 돌아오라고 했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두 딸을 만나자 사냥감을 찾아 헤매던 삶에서 벗어나 두 딸과 결혼을 한다.

그렇다면 이 구리할머니를 넘어서자 만나게 된 시커먼 할머니는 어떤 모성을 가진 것일까? 시커먼 할머니는 구리할머니와는 다른 속성을 가진 할머니이다. 이름이 특별히 없더라도 민담에서 주인공들은 갈 길을 잃었을 때 할머니를 만나서 길을 묻거나 잠시 머물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커먼 할머니는 이들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할머니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할머니 형상의 모티프를 길을 잃은 주인공들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젊은 모성보다 한 세대 더 위의 모성상으로, 기르고 보호하는 모성적 특성보다는 삶과 죽음, 근본적 변환을 요구하는 원동력<sup>33)</sup>으로 논의된 바 있다. 본 논의에 더 나아가 할머니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지만, 두 소녀가 도움을 줄 관계로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해 보고 싶다. 시커먼 할머니는 두 소녀에게 사냥 간 아들을 찾아달라는 어려운 과제를 냈지만, 이를 해결한 두 소녀는 결혼이라는 상징적인 또 다른 관계를 확장해가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이 있는 존재로 변모했다. 시커먼 할머니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소녀는 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며 타인의 삶에 접속하는 삶의 길을 내게 된 것이다.

이처럼 4단계의 과정에서는 하나의 설화만을 접했을 때와는 다르게 서로 다른 문화권이라는 낯섶을 넘어설 수 있는 공동된 화소로 친밀함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설화가 가진 서사의 차이를 인지하며 비슷한 주제를 조금씩 다른 시각에서 사유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오누이가 엄마옷을 입은 호랑이를 통해 어두움, 공포와 대면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신들만의 빛을 찾는 성장의 자질을 획득하며 자립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는 두 소녀가 잡아먹는 모성상인 구리할머니를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모성은 집 안에 있다고만 생각하기 쉽고, 집에는 모성적 돌봄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키르기스스탄 설화에서는 집 안에만 머무는 것은 구리할머니에게 잡아먹히는 삶이고, 시커먼 할머니를 통해 오히려 집 밖에 나왔을 때 또 다른 세상의 조력자이자 지지자인 모성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커먼 할머니는 〈구렁덩덩신선비〉의 막내딸과 바

33) 이유경, 『민담의 여성상』, 분석심리학연구소, 2018, 167쪽.

리데기가 길을 물어보는 마고할미와 비슷하다. 하지만 시커먼 할머니가 어떤 존재인지는 두 소녀의 판단에 달려있었다는 점이 다르다. 두 소녀가 엄마와 구리할머니 사이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시련을 줄지, 도움을 줄지 모르는 대상을 자신들의 시선과 가치관으로 판단하며 만나갈 힘이 생겼다는 점이 강조되는 것이다. 아동에게 홀로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던 위니콧은 역설적이게도 ‘개인에게 홀로 있는 상태란 항상 어떤 누군가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4)</sup>고 했다. 자립이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집 밖에서 만나기는 것’이기에 ‘의존을 넘어선 건강한 개인’은 고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sup>35)</sup>

이제 5단계로 한국의 설화와 키르기스스탄의 설화가 가진 차이로 확장된 사유를 현재 이주여성들에게 보여지는 한국의 교육문화를 기준으로 자녀들이 동화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다양한 준거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 결혼이주민은 엄마로서 한국 엄마들의 정보력과 희생을 따라가지 못해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있으면서도 한국의 교육방식이 이주민 모국의 방식에 비해 옳은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다.

좀 힘들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 같은 거 좀 아직까지 어려워요 사교육을 많이 하지 않아서. 돈도 많이 들여야 되고. 내가 가르치기는 좀 부족하고. 한국 엄마들이나 한국 교육 시스템에 맞춰서 제가 가르쳐줄 순 또 없구. 그런 점은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워요.<sup>36)</sup>

34) 마텔레인 데이비스·데이빗 윌브릿지 저, 앞의 책, 55쪽.

35) 위니콧은 절대적 의존, 상대적 의존, 독립의 3단계를 말하며, “완전한 독립이란 없다. 건강한 개인은 고립되지 않으며, 개인과 환경은 상호의존적인 방식으로 관련을 맺는다.”고 했다.(마텔레인 데이비스·데이빗 윌브릿지 저, 위의 책, 49쪽.)

36) 자료명 :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담, 제보자 : 딸\*\*렐 [몽골, 여, 1983년생, 결혼이주

[조사자: 어떤 게 힘드셨어요?] 자녀 문제. (중략) 몽골에서는 안 그래요, 혼  
나요. (웃으며) 혼나고, 자기 능력으로 교육해요. 근데 여기는 고기를 잡아  
주는 거잖아요. 몽골에서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 줘요. (웃으며) 그런 식으  
로 많이 교육해요.<sup>37)</sup>

그런데 이와 같은 사유는 비단 이주여성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많은 엄마들이 가진 자녀들에 대한 고뇌도 이와 맞닿아 있다. 오랜 세월 구비 전승된 설화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엄마가 없어졌을 때 아동이 우여곡절을 겪지만 잘되는 이야기들이 많다. 전세계 광포설화인 ‘의붓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다. 엄마가 일찍 죽어서 계모에게 천대받았던 딸이 오히려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된다. 통상적으로 가부장사회에서는 아동의 돌봄을 모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이들 설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애롭고 희생적인 모성에 대한 기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일가에 대해 정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결국 잘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과 잘 관계 맺을 힘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집에서 먼 황무지밭을 매야 하는 콩쥐가 만나는 검은 소, 서천서역국으로 길을 떠난 바리데기가 만나는 마고할미처럼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의 시커먼 할머니는 겉은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은 집 밖으로 나왔을 때 길을 열어주는 또 다른 집 밖의 ‘사회적 모성’이다. ‘사회적 모성’은 집 안에 있을 때처럼 엄마가 희생적으로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집 밖을 나와 타인을 만나가며 스스로 문제나 과제를 해결해 가는 경험을 확장하게 하는 2차적 돌봄과 성장의 과정이다. 집 안에서의 희생하는 모성, 잡아먹는 모성의 대립만이 의미를 생성

14년차], 조사일시 : 2018.01.12.(금)오후, 조사장소 : 서울시 동대문구 쌍림동.

37) 자료명 : 부부의 교육관 차이, 제보자 : 수호\*\*\*\*\*가여몽골, 여, 1966년생, 결혼이주 15년차], 조사일시 : 2016.11.11.(금) 오후, 조사장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의 사회적 모성 역시 성장과정에 필요하다.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 이야기를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민들이 겪는 불안을 함께 해결해 가는 다른 시각을 주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다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혼란의 감정을 겪기도 하고, 주류문화와 소수문화 사이에서 주변적 존재<sup>38)</sup>인 것 같아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한국문화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준거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서 상호문화적 관점으로 볼 때, 이들은 민족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다문화적인 관계를 내면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존재들임을 보게 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다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이를 통합해가는 과정이 고립이 아니라 자립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 안에서 자애롭고 희생적인 모성으로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시커먼 할머니와 같은 ‘고립되지 않게 하는 사회적 돌봄’의 관계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한다.

요컨대 키르기스스탄의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 민담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나 계모와 의붓자매 설화에서 두 어머니나 두 모성을 만나는 이야기 기군과 다르게, 각기 다른 세 번의 모성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을 돌봐주는 따뜻한 모성의 돌봄을 벗어났을 때의 삶을 그려내게 한다. 전세계의 많은 설화에서는 성장기에 엄마의 자애로움과 돌봄에 머물고자 할 때, 모성의 돌봄이 성장과 자립을 오히려 통제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잡아먹는 모성상’인 호랑이와 구리할머니와 같은 부정적 모성으로 상징하여 보여준다. 그리고 잡아먹는 모성과 대면하고 세상으로 나왔을 때, 〈해와 달이 된 오누이〉처럼 자신만의 빛을 내는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두 소녀처럼 시커먼 할머니로 상징되는 돌봄과 성장의 세상을 만나가며, 다시 한 번 ‘고

38) 한용택, 앞의 논문, 117~118쪽.

립되지 않고 자립’해 가게 되는 상징적 도약을 이뤄내는 여정을 보여준다.

## 5. 결론

구비설화에서 아동이 ‘잡아먹는 모성상’을 벗어나게 되는 것의 상징적 의미는 결국, 자녀가 부모의 돌봄을 경험한 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립을 이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잡아먹는 모성상’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자녀들이 모성의 돌봄을 넘어서서 자립으로 나아가는 삶의 서사적 길을 보여준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담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엄마를 잡아먹고 엄마의 옷을 입고 엄마인척 하는 호랑이는 오두막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머물고자 하는 오누이들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더 너른 세상인 하늘로 올라가게 한 결과, 오누이들은 세상을 비추는 커다란 존재가 된다. 한국의 다문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앙아시아의 이주민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결혼이주민만이 아니라 한류열풍으로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중앙아시아 국적의 유학생들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중앙아시아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의 민담인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는 러시아민담의 〈바비야가〉와는 또 다른 할머니 형상을 만나게 한다. 구리할머니는 금속의 날카로운 속성과 무서운 식인의 속성을 가진 할머니다. 한국에는 없는 이질적 형상의 화소이다. 그러나 이 화소의 의미를 살펴보면 엄마를 잡아먹고 오누이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호랑이와 공통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유사점, 같음을 찾는 것은 상호문화 교육에서 친밀함을 형성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다른 문화에서 형성된 이야기에는 이질적인 차이도 있고, 이 차이를 매개로 사유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의 준거를 접하게도 한다. 구리할머니가 엄마를 잡아

먹고 소녀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자 소녀들은 어머니의 유품으로 구리할머니의 추격을 이겨내고, 섬으로 가서 시커먼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 구리할머니도 생소하지만 시커먼 할머니도 낯설다. ‘잡아먹는 모성상’으로 인해 세상에 나왔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모성도, 잡아먹는 모성도 없지만, 구리할머니로 쫓겨나온 섬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는 시커먼 할머니가 있다.

보통의 이야기들은 대립되는 두 모성의 속성 대비가 두드러지는데, 중앙아시아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이렇듯 세 모성의 속성을 보여준다. 이런 ‘사회적 모성’의 돌봄 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중앙아시아의 이주민들을 만나며 설화를 조사했던 과정에서 접하면서 느꼈던 이슬람교의 영향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기도 했지만, 논문으로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연구자의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아직 깊지 못했다. 다만 고려인 3세대인 카자흐스탄의 유학생이 들려준 할머니의 생애담이 떠올랐다.<sup>39)</sup> 한겨울에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어 막막했을 때,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 온 고려인들이 굶어 죽을까 걱정하며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줘서, 할머니와 많은 고려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이는 집안,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 모성’의 힘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본 논의의 방향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의 사회적 모성이 되길 기대해 본다. 더 나아가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었을 때는 다문화도서관, 다문화센터 등에서 수업을 실행하여, 그 구체적 결과물을 논해야 하는 후속 과제가 남는다.

39) 자료명 : <고려인 할머니의 카자흐스탄 이주 내력>, 제보자 : 조\*\*나[카자흐스탄, 여, 1995년생, 유학 2년차], 조사일시 : 2017. 12. 19(화) 오후, 조사장소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4, 평민사, 1993, 1~313쪽.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2권, 평민사, 2011, 1~382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7, 1980, 1~1037쪽.  
한국학 중앙연구원, 『다문화 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설화 구술자료 DB』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6-KFR-1230004>)  
여성가족부,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2021.5.  
([/nw/rpd/nw\\_rpd\\_s001d.do](http://nw.rpd.nw.rpd.s001d.do))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1. 6. 30, 1~1118쪽.  
통계청,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20.11.05, 1~50쪽.

### 2. 국내논저

- 김민수, 「다문화 설화작품과 현장적 소통방식의 문학치료학적 활용가능성」,  
『문학치료연구』 4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165~195쪽.  
김정은, 「〈꽂지 닷 발 주둥이 닷 발〉설화에 나타난 탐색과 문답의 서사원리 연구」,  
『한국고전연구』 38,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117~151쪽.  
김정은, 『옛이야기와 자기발견의 스토리텔링』, 그래비티북스, 2020, 1~259쪽.  
김정은, 「이주민 구술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의 교육 방안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3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201~238쪽.  
김정은, 「아시아 열두 띠 설화의 동물 표상을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신장의 문화교육 : 이주민 구술설화 자료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60, 한국구비문학회, 2021, 119~159쪽.  
김정은, 「자연물이 된 아이」 화소에 표상된 돌봄의 문제적 양상을 활용한 다문화 화이동의 상호문화 주체성 모색—결혼이주민 구술설화 자료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3, 한국여성문학회, 2021, 42~63쪽.  
김영순·오영섭, 「전환학습 관점에서 본 이주민설화조사 연구자의 다문화감수성 발달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8-3, 한국국제교류문학학회, 2019, 47~74쪽.  
김현숙,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 1~86쪽.

- 박해운, 「한·중 전래동화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충주: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1~69쪽.
- 박현숙, 「이주민 구술설화의 문화적 가치와 활용 방안」, 『구비문학연구』 49,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179~229쪽.
- 신동훈, 『삶을 일깨우는 옛이야기의 힘』, 우리교육, 2012, 1~340쪽.
- 신동훈,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 『국어국문학』 180, 국어국문학회, 2017, 281~323쪽.
- 신승혜, 「신화를 활용한 결혼이민여성의 상호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225쪽.
- 오정미, 「이주민 설화 조사를 통해 본 새로운 다문화교육 방안」, 『구비문학연구』 47, 한국구비문학학회, 2017, 187~211쪽.
- 오정미,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 :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 인하대학교교육연구소, 2020, 1281~1298쪽.
- 오정미, 「아시아 트릭스터담을 활용한 상호문화교육에서의 공감교육 - '다름'이 아닌 '같음'을 바탕으로 -」, 『우리문학연구』 69, 우리문학회, 2021, 133~162쪽.
-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페미니스트 정신분석이론가들』, 여이연, 2016, 1~271쪽.
- 이부영 외, 『민담학개론』, 일조각, 1989, 1~372쪽.
- 이유경, 『민담의 여성상』, 분석심리학연구소, 2018, 1~351쪽.
- 이지영,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전승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 1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8, 171~215쪽.
- 임선일·이정연, 「다문화교육의 한계와 상호문화교육으로의 전향 가능성에 관한 연구」, 『시민인문학』 32,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40~71쪽.
- 장한업,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교육과학사, 2017, 1~184쪽.
- 정운채, 「구비설화에 나타난 자녀서사의 어머니」, 『문학치료연구』 제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231~252쪽.
- 최원오, 「다문화사회와 구비문학 교육」, 『어문학』 106, 한국어문학회, 2009, 131~147쪽.
- 최원오, 「구비문학을 통한 다문화적 소통 방향에 대한 제언」, 『구비문학연구』 49,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59~82쪽.
- 한기호,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의 신화적 성격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와 키르기스스탄의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 이주민설화의 227  
‘잡아먹는 모성상(母性象)’ 화소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창원대학교, 2006, 1~117쪽.

한용택, 「Bennett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발달 모델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시안」,  
『시민인문학』 32,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107~136쪽.

황혜진, 「베트남 이주민 구술설화 자료의 현황과 성격 연구」, 『고전문학과 교  
육』 4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9, 155~197쪽.

### 3. 국외논저

Birkhauser-Oeri, Sibylle 저, 이유경 역, 『민담의 모성상』, 분석심리학연구소,  
2012, 1~351쪽.

Wallbridge, David 저, 이재훈 역, 『울타리와 공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1~240쪽.

ABSTRACT

A study on intercultural education using the motif of the ‘maternal image with eating up’ from the Korean folktale of “Sister and Brother Who Became the Sun and the Moon” and the Kyrgyzstani immigrants’ folktale of “Grandmother with Copper Fingernails and Two Girls”

Kim, Jung-eun

This study aimed to reduce the discomfort in accepting different cultures, affirm both one’s own culture and other cultures, and form an attitude that communicates differences. To achieve this, the study attempted to create familiarity by identifying similar motifs in oral folktales that reflect the cultures of different countries. It presented a five-step process for intercultural education that includes overcoming experienced by immigrants through the use of and differences between heterogeneous motifs.

The study focused on the Korean folktale “Sister and Brother Who Became the Sun and the Moon” and the Kyrgyztani immigrants’ folktale “Grandmother with Copper Fingernails and Two Girls”. In the two folktales, the ‘tiger who wears mother’s clothes’ and the ‘grandmother with copper fingernails’ are characters who trigger the ‘maternal image with eating up’ motif. Further, after consuming the sacrificing mother, they attempt to devour the mother’s children. When the children face the predator, they experience fear; but as they move through space with this as an opportunity, they achieve a symbolic leap forward for growth. The two girls in the Kyrgyzstani folktale, unlike the brother and sister in the Korean folktale exhibit the difference in experiencing three times maternalism again. This difference can be interpreted in terms of social maternity of relationship expansion that can overcome the confrontation between a sacrificing mother and a maternity with eating up. This thesis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와 키르기스스탄의 〈구리할머니와 두 소녀〉 이주민설화의 229  
‘잡아먹는 모성상(母性象)’ 화소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suggests that the anxiety regarding children's educa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resolved by referring to the criterion of social maternity.

**Key Words**

sacrificial mother, maternal image with eating up, social maternity, immigrants's folktales intercultural education, child rearing, Kyrgyzstani folktales

논문투고일 : 2021.10.25.  
심사완료일 : 2021.11.07.  
게재확정일 : 2021.11.09.